



GEORGE GASCÓN

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



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2020년 12월 7일 제 43대 LA 카운티 검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. LA 카운티 검찰청은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카운티의 검찰청으로, 개스콘 검사장은 이 지역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개스콘 검사장은 LAPD에서 순찰 경관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여, 빌 브라튼 경찰청장 재임 당시 LAPD 경찰 부청장으로 승진하였고, 아리조나 주 메사 시의 경찰청장,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 재임 당시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.

2011년 당시 전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던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되면서, 뉴섬 주지사가 개스콘을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. 쿠바 출신 변호사인 개스콘은 샌프란시스코의 최초 라틴계 경찰청장이자, 미국 내 최초의 경찰청장 출신 검사장이기도 합니다.

개스콘 검사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두 번의 검사장 임기 동안 관할 지역 교도소 재소자를 약 30% 감소시켰고, 폭력 범죄 건수를 역대 최저로 낮추었습니다. 미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고, 마리화나 합법화 후 관련 유죄 판결기록을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최초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.

경찰 내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조사국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설치하였습니다. 또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법 제정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유일한 지역 검사장이었습니다.

개스콘 검사장은 롱비치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, 웨스턴주립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. 배우자는 3회 에미상 수상경력의 저널리스트, 파비올라 크램스키입니다.